신당 ‘봉합이냐’ ‘파국이냐’ 갈림길

지도부 14일 ‘원샷 경선’ 제시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가 경선 파행을 막기 위한 중재안으로 ‘원샷 경선안’을 제시했다. 오는 14일 남은 8개 지역 경선을 모바일 투표와 함께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정동영 후보는 ‘당 지도부가 경선 패배가 확실한 2·3위 후보들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의 ‘원샷 경선’ 결정이 내려진 3일 오후 당사를 나서던 오충일 대표가 지도부 결정에 반발한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에게 에워싸여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샷 경선 수용되나**=일단 손·이 후보는 지도부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 후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선 일정 변경도 문제지만 당장 수용한다면 마치 동원경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중재안을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 측이 하루 이틀 정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한 뒤, 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샷 경선 영향**=일단 정동영 후보 측은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을 변경, 오는 14일 남은 경선을 치르자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손·이 후보 측이 주장한 동원선거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은 지역 순회경선에서 대세론을 몰아붙이려 했던 정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경선 일정 변경으로 경선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손·이 후보는 원샷 경선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역 순회 경선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정 후보의 대세론을 넘기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각 캠프 경선 전략**=정 후보는 일단 원 샷 경선은 경선 승리가 어려워진 손·이 후보가 ‘판을 깨겠다’며 당 지도부를

鄭“2·3위 후보 협박에 굴복” 반발
孫·李 “경선 판 반전 마지막 기회”

협박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할 전망이다. .

즉, 순회경선을 통한 정 후보의 대세몰이를 차단하고 동원선거 논란을 계속 끌고 가면서 정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 후보 측은 원샷 경선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경쟁 후보 조직의 동원선거 사례를 집중 공개하면서 손·이 후보의 조직·동원선거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는 한편 대세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손·이 후보 측은 원 샷 경선은 당 지도부가 정 후보 측의 동원선거를 인정한 것이라며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변수는**=우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심이 동원선거와 정 후보를 함께 묶을 경우 경선 구도는 대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 명의도용 수사 결과는 경선 일정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정 후보 캠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경선 구도는 파란이 예상된다.

손·이 후보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의 후보단일화론도 잠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제주경선 ‘반쪽’ 전락

장상·조순형 “이인제 동원선거 의혹” 경선 보이콧

민주당의 3일 제주 지역경선이 조순형 후보와 장 상 후보의 불참에 따라 ‘반쪽짜리’ 선거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 시민회관에서 네번째 지역순회 경선을 실시했으나 조 후보와 장 후보가 이인제 후보의 동원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동으로 ‘경선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제주지역 합동연설회 등은 이 후보와 김민석 신국환 후보를 비롯해 세 후보 지지자 200여명만 참석하는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동원경선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후보와 신 후보는 ‘이 후보 사퇴론’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다.

조 후보측은 이 후보의 금권.동원선거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이 후보측은 “허위사실 날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조 후보측 장전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18일 전주시 완산을 지역위원회가 버스 13대 등을 동원, 당원 800여명과 함께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전체 유효득표 1천263표 중 544표(43.1%)를 획득, 417표(33%)를 얻은 이인제 후보를 127표 차로 앞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의 지역경선 누적집계로는 이인제 후보가 7천844표(45.7%)로 1위를 고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무위 신당 의원들, 이명박 국감 증인 신청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투자운용사인 BBK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측이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명목으로 증인 신청한 인사들은 이 후보를 비롯해 친형인 상은씨, 처남인 김재정씨, 김경준 전 BBK 대표, 에리카 김 BBK 전 이사 등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도 증인 신청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윤재 게이트’와 관련,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비롯해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씨,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일정 및 증인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나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황종국 판사
대선 출마 위해 사표

부산지법 황종국(54·민사8단독) 부장판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법복을 벗었다.

부산지법은 지난 주 제출한 황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대법원이 2일 최종 수리했다고 3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생명원리를 되살리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박-부시 회동 불발

성급한 발표로 망신…외교력 한계 노출
푸틴 면담도 연기, 4강 외교 행보 ‘삐걱’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면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백악관이 면담 계획을 공식 부인하면서 사실상 이번 회동은 무산됐다.

야당 대선후보로서 사상 첫 미국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사실상 ‘이명박 대세굳히기’라는 자평을 내놨던 이 후보측으로서는 외교력 한계를 드러내면서 안팎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셈이다.

◇**추진에서 사실상 무산까지**=이 후보와 부시 대통령의 면담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사’와 ‘무산’ 소식이 모두 백악관에서 나왔다.

‘역사적 회동’이 성사됐다는 소식을 처음 전한 것은 한국인 출신으로 미 행정부 최고직에 오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강영우 차관보. 그가 지난달 28일 현지 특파원들에게 회동 성사 소식을 먼저 알렸다.

그러나 우리 외교당국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채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일 주한 미대사관측이 “백악관이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그런 면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 이는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은 ‘무산’쪽으로 정리됐다.

◇**외교 프로토콜 ‘무지’**=이번 해프닝은 공식 외교라인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데다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측은 지난 6월부터 주한 미대사관측에도 미국 방문과 부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강영우 백악관 차관보와 공화당 인사들을 ‘대안채널’로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차관보는 회동 요청에 대한 멜리사 버넷 백악관 의전실장의 답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해 추진해 보겠다”는 외교적 수사를 ‘성사’로 받아들인 것.

◇**4강 외교 ‘삐걱’**=한나라당이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이 후보가 스스로 ‘회담 성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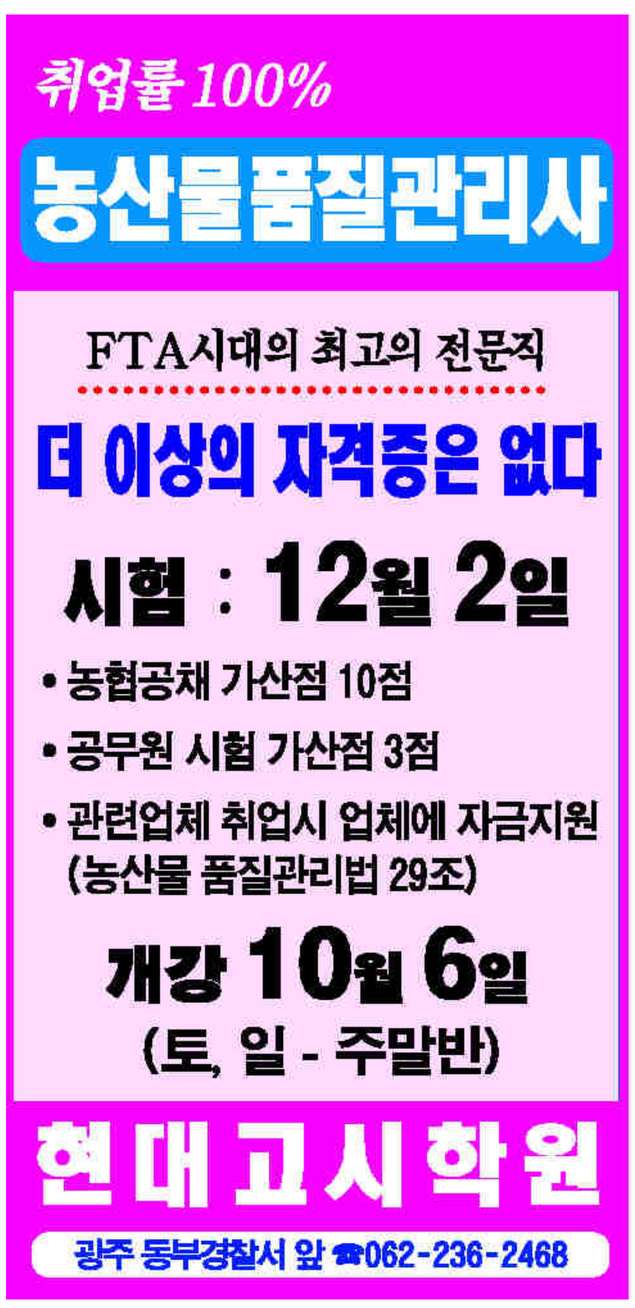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달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계획했던 이 후보의 ‘4강(强) 외교 행보’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계속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 무산은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미에 앞서 추진했던 러시아 방문도 현지 총리사퇴와 내각개편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차기 총선 출마를 통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돼 외교력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3일 당사에서 열린 당 개천절 행사에 참석,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李-朴측 원로들 ‘화합의 만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 이명박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측을 각각 도왔던 당의 원로들이 만찬회동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화합을 다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 후보를 지원했던 김수한 전 국회의장, 정재철, 신영균, 정창화, 이중재 전 의원 등과 박 전 대표를 도왔던 김용갑 의원, 최병렬 전 대표, 김용환 전 의원은 2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함께 하면서 당 화합 방안 등을 놓고 담소를 나눴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이날 만찬은 강재섭 대표가 주선했으며, 이 후보도 뒤늦게 합류해 50분 가량 자리를 함께 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